

# 불심·교양·친목 '일석삼조'

## 사찰 문화강좌 '인기'

전통문화를 배우고 전통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아울러 불자들과의 공동체생활을 통해 친목도 다지고...

1석3조의 효과를 지닌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사찰이 늘어나면서 참여하는 불자 또한 많아지고 있다.

민요 꽃꽂이 선체조 한국무용 등 기존 강좌외에 색지공예 다도 단소 가야부르기 등을 신설했다. 특히 불화그리기 서예 선체조 한국무용 등에는 각 20명 넘는 수강생들이 모여 전통문화를 익히려는 열기가 뜨겁다.

작품 미련, 엄마와 자녀가 함께 와 배울 수 있게 한 점이 이채롭다.

전용소극장을 갖고있는 구룡사는 오는 3월4일 개강을 목표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영아·일어회화 △서예 △수직성 △꽃꽂이 △선체조 등으로 영아와 일어는 현재 외국어학교

높아져야 강의한다.

불교문화센터들은 일반 문화센터와 달리 상업성이 배제돼 정규시간 후에도 얼마든지 연습할 시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안고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가 먼저 법당에 들러 기도부터 할 정도로 불심을 바탕으로 하는 배움이라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

또한 문화강좌를 통해 배운 솜씨를 '부처님 오신날' '성도절' 등 사찰 행사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조계사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불축공연에는 '한국무용' 수강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관정석에는 꽃꽂이 수강생들이 솜씨를 발휘한다.

그러나 가장 크게 두드러진 점은 우리 문화에 대한 안목이 달라진다는 점. 성지순례를 가기도 텃밭이나 벼와 밭 등에 진지한 눈길을 보내며, 대교과국 보전 등 전시회에 단적으로 관람을 할 정도로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높아진다는 것. 실제로 BBS 불화그리기 회원들은 지난 1월, 20일동안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불심과 예심을 돈독히 했다. 또한 강좌 및 회원별로 전시회도 개최해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대외에 과시하기도 한다.

'불화그리기'를 2년째 배우고 있다는 정대덕화보살(48·강남구 청담동)은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신심이 없으면 안되기에 불교공부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불화를 웬만큼 익힌 후에는 단청도 배우고 싶다"고 배움의 꾸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 불심시심 <43>

#### 저 달이 바로 보배

西來一寶獨 (서래일보독) 서쪽에서 온 보배 촛불 하나  
何必苦推尋 (何必苦推尋) 왜 꼭 괴로이 찾아가야 하나  
夜深山雨後 (야深山雨後) 밤 깊어 산비 개인 뒤에  
(야산산우후)  
涼月上東岑 (涼月上東岑) 싸늘한 달 동녘 봉우리에 오르는데  
(달월상동정)

소요대사의 제자 중 한 분에 침광(沈光 1616~1684)대사가 있다. 대사는 기초지방의 명문 출신이었으나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어 어머니를 극진히 따르다 10세에 출가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 신동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출가한 뒤 소요당을 한 번 방문한 뒤 심복이 되어 그 문하에서 정진하여 승속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사는 유·불·선의 모든 경전에 두루 참여하여 그가 남긴 높은 문집 침광집(沈光集)에 보이는 서문의 대부분이 선을 표방함이 없이 스스로 선적 길이를 함축하고 있다.

위에 예시한 시는 잠도인(岑道人)에게 쓴 시다. 상대방의 도호인 뽕뿌리 잠(岑)자를 풀이하는 방식을 택한 시이다. 선을 굳이 깊은 진리로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주변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상대방의 이름으로 예시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처지에 따

라 방편을 제시하는 선사의 면모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대사의 법호와 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사의 법명은 현번(顯辯)이고 자는 이불(而訥)이다. '달 현'자와 '말씀 번'자로 이름을 삼았으니 말씀을 잘한다는 뜻인가, 말이 달린다는 뜻인가. 전자의 해석을 취할지 옳을 듯하다. 그야말로 달변으로서의 현번이다. 그러기에 자를 '이불'이라 하여 어울리는 불(訥)자로 억압한 것이라.

대사의 법명이 의미하듯이 그의 시는 달변가가 말 흐르는 듯이 토해 내는 말씀과 같다. 위의 시도 순간적으로 던져진 법문이다. 서쪽에서 전해온 보배 진리 왜 찾으려 애를 쓰는가 밤 깊고 비 온 뒤의 맑은 하늘에 돌아오르는 시 산봉우리의 달이 바로 진리의 보배가 아닌가. 그대의 이름이 바로 이러한 진리의 밝음을 간직할 수 있는 뽕뿌리라는 뜻이 아니냐 한 것이다. 그야말로 레기설법이다.

이충찬 (동국대 교수)

### 불화·다도·서화·어학·건강등 세분화

#### 상업성 배제 "신행 바탕으로 배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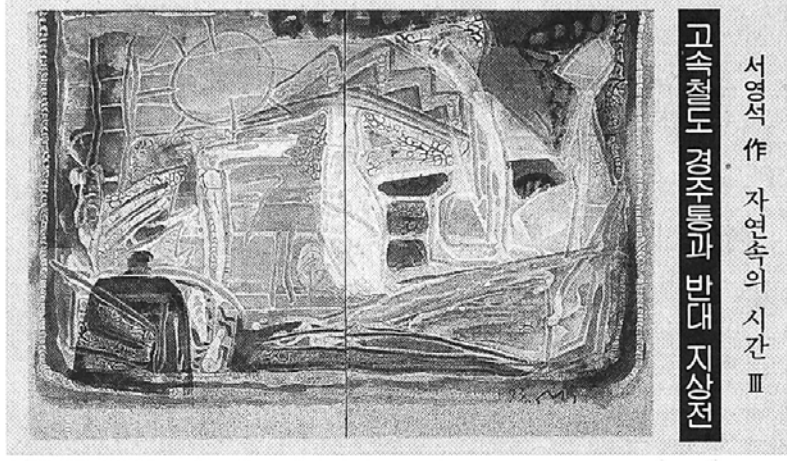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능인선원(577-5800)이 최근 문화강좌를 개설했고, 구룡사(575-7766) 법륜사(733-5322)와 불교TV 부산지사(053-3270-3476)가 문화강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계사(720-1390)는 불화그리기 서예 사군자 등양화 판소리 남도

참여가 높으며 1기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만여명 이상(중복수강 포함)의 수강생을 배출해 년 불교방송 문화센터(703-0108), △불교 △전통 △교양 △서화 △어학 △어학 △커뮤니케이션 △진강 △유아 강좌 등으로 세분화돼 불교전통꽃꽂이·다도 등 강좌만도 40여개 이른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와 유아강

교사들이 직접 가르칠 예정. 전통미술관의 개관으로 새로운 도시 문화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법륜사도 불일문화강좌를 개설 3월6일 개강한다. 불교미술의 이해, 선시 감상, 사자의 미학·실습, 도자예술킴, 절로가는 마음 등 수준 높은 불교관련 문화강좌를 마련

조급 조급 고급 등으로 단계를



서영작 **자연속의 시간 III**  
고속철도 경주동과 반대 지선전

## 중국 대불사 불경 6천여권 발견

상태양호... 사경·불교음악·불화등 장르 다양

중국 감숙성 장악에 위치한 대불사에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관을 비롯 6천여권이 넘는 대량의 불경이 발견됐다. 이는 1900년 돈황 막고굴에서 '법보단경'을 비롯한 장경들이 발견된 이래 최대의 분량으로 세계 불교학계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불사는 서하시대인 1098년 건립된 사찰로, 장경전의 뒷벽이 길이 40m 높이 20m 두께

4m의 결벽으로 돼 그 속에 12개의 경관안에 <북경> 경관을 비롯 보살상대가 뛰어난 대량의 불경들이 보존돼 있었다. 모두 64개의 경관속에 각 10권씩 보관된 이들 문헌은 천자문의 순서대로 정렬돼 있었으며 총 4부로 구성됐다. 이중 <대명상장성교북장>은 명 성조때인 1403년부터 20여년 동안 북경 정부가 중국불교 각 종파의 경을 1261부를 모아 판각한

것으로 모두 6647권에 달하는 대량 분량이다. 또 명 전통 6년부터 116년동안 금본과 은본으로 사경한 <대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 등 622권의 사경본도 발견됐으며 불교음악 15곡 불화 20여곡, 손으로 쓴 현장의 <대당서역기> 황제가 내린 북장경관 822매 등이 발견됐다. 특히 이 북장경관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관의 실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계는 물론 고고학계의 세계적 보물인 석가모니 진신사리(인도 국립박물관), 상아 불상 패엽경(미얀마), 만다라(네팔) 등을 비롯 세계 13개국 5백여점의 불교문화재를 국내최초로 일반에게 공개해 화제를 모았던 세계불교문화전이 지난달 31일 폐막했다.

시절을 마친 각국의 불교문화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관심사를 끌었으며, 지난해 11월 13~19일에는 '성철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유물전시회도 함께 열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을 잇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월과 10월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의 방광이 목격되어 관람객들의 경이심

이태호교수 주장

### 세계불교문화전 '30만명 관람'

### 석가모니 진신사리 방광 '경외심'

### 불전 1천7백만원 복지시설에

동주최로 용인자연농원에서 열린 세계불교문화전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30여만 명이 관람했다.

이번 전시회는 불자와 일반인 누구나 쉽게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불교의 각종 관련자료 전시와 함께 영상자료를 통해 웅장한 불교문화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등 불교역사 2천5백년을 재조명하고 동남아 지역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전시된 인도관을 비롯, 중국 미얀마 태국 등 국가별로 전

을 지어냈다.

지난 12월 9일에는 전시장에 설치된 불전함을 통해 모금된 1천7백여만원의 성금을 성철스님 사리탑 건립기금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연꽃마을 용인양로원 등에 각각 전달했다.

전시기간중 경기도 이천의 박찬희불자는 부처님 진신사리에 매주 꽃공양을 올려 화제가 됐다. 박씨는 "불자로서 매일 진신사리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미흡하나마 대신하기 위해서 꽃공양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 문화재 소식

#### 경주남산 유료입장 4월부터...문화재보호차원

노천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남산의 입장이 오는 4월부터 유료화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국립공원과 사적지로 지정된 남산의 각종 문화재가 연간 30만명의 등산객에 의해 훼손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관광료 징수를 경북도에 요청했다.

### 봉림사터 신라말 불상등 출토

#### 명문기와·새조각부도등 보물 150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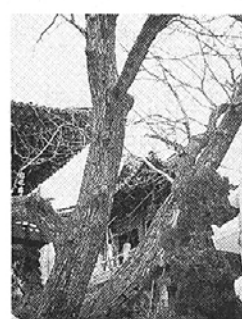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의 하 나인 경남 창원시 봉림사터에서 신라말의 금동불상 및 청동불상 등 보물급 유물을 포함한 귀중한 문화재가 다량 출토됐다.

또 이곳이 봉림사지임을 확증시켜주는 명문기와와 새조각 부도장식이 함께 출토돼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민)는 봉림사지 발굴조사결과 통일신라말-고려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청동불상 각 1구, 봉림사터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등 기와류 33점, 토기류 및 기타 15점등 모두 1백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천안 광덕사 호도나무 문화재 지정 주민청원

호도 주산지인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주민들은 최근 이곳 광덕사 경내에 우리나라



최초의 호도나무(사진)가 있다

는 점 등을 들어 이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문화체육부에 제출했다.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호도나무 첫 재배지 문화재지정 청원위원회'는 각종 문헌조사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호도나무는 고려 충렬왕 16년에 유정신이 원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묘목을 들여와 현재의 광덕사 경내에 심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시간동 일대 '문화거리' 조성

6백년 도읍지의 옛 정취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복궁 동편 시간동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국군서울지구방위령을 이점하고 이곳에 파리의 종피투센터와 같은 미술관을 조성하려는 '국군병원 이전하여 문화거리 만들기' 추진위가 지난 6일 2개 문화예술기관과 체인사들로 구성 발족했다.

이흥준 북한대교수 박명자 권미리 현대 대표 등 12명을 실행위원으로 위촉한 추진위는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한 국군병원이전 건의서'를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 김양동씨 첫 개인전

각·서·화의 경계를 넘어 혼용한 작품을 발표하는 김양동씨 첫 개인전이 '한국문화의 원형탐구와 새로운 조형어법'을 주제로 27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02)733-9512

"어려운 역경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 "스님께만 알려드리는 획기적인 정보!"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祕의 佛塔다라니"

◎ 자체에서 실제로 強力(강력)한 氣(기)가 방출됨이 입증된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운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급원에 1,000원에 사담에만 보내드려 큰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처는 순서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바로 알려주세요)

이 책자는 현재 사담을 운영하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방법은 신도개인의 현재의 운을 그자리에서 직접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영가의 병의 상태, 관념파장의 방향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며, 나쁜운이 좋아지게 변화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으며, 영가의 병의 관념파장을 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운명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며, 전혀 운명을 판단해 줄 수 없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되어, 이번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佛塔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 고급백색종이 100% 순수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크기) : (가로)62cm x (세로)160cm

■ 상담문의 : 대한불교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 5층)  
전화 : (051)864-3740

■ 책자신청 :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전화 : (0335)34-9490, 39-1906, 야간 (0342)706-3060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佛塔비방"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 않는"

## 신비의 바라밀 썩뜸기 보금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래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썩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썩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썩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이 때문입니다.

**바라밀 썩뜸 건강요법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썩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기생, 위암, 대장암, 간염, 간경,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자궁혈압, 메림,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설물,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질환,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썩뜸기 내용  
1) 바라밀 썩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세트(강화약썩약 2개월분 포함)  
2) 썩뜸 도구 일체 변형구적  
3) 썩뜸기 한셋트로 전기족이 사용  
4) 노부모양의 효도 선물로는 제 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썩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864-3740

■ 서울·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34-9490, 39-1906  
· 야간 : (0342)706-3060